

## 일반기사

# 공검지

안상진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영호 (충북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 위치 :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199 - 7
- 지정 :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 121호 ('97. 9. 29 지정)
- 상세설명
  - 시대 : 삼한시대
  - 크기 : 못둑의 길이 34m, 높이 3.6m
  - 면적 : 14,716 m<sup>2</sup>
  - 수량 : 16,063 m<sup>3</sup>
  - 소유주 : 상주시 합창 토지개발조합

공갈못으로 널리 알려진 저수지다. 축조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며, 삼한시대 내지 고령가야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한시대 3대 저수지 가운데 하나로, 고려사 지리지에는 공검이라는 큰 못이 있었는데 1195년(명종 25) 상주사록(尙州司錄) 최정분(崔正鎔)이 옛터에 축대를 쌓아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경상도읍지(1832)는 공갈못의 수심이 10자(尺)였다고 되어 있으나, 고종 때 못의 일부를 논으로 만들면서 5.700평 정도로 축소되고 1959년 12월 31일 공검지 서남쪽에 오테저수지가 완공되자 1964년 2000여 평만 남기고 모두 논으로 만들었다. 1993년 옛터 보존을 위해 14,716 m<sup>2</sup>의 크기로 개축하였다. 지금은 문화유산의 보존 의미에서 조금 남아 있으나, 수리시설의 기능은 하지 못한다.

이 공갈못은 축조와 관련하여 못이름이 다양한데 공갈이란 아이를 묻고 독을 쌓았기에 공갈못이란 이름이 생겼다는 설을 비롯하여 축조방법에 따라 부른 공건제, 공골지, 못의 규모를 따라 부른 경호(鏡湖), 검호(劍湖), 검호(劍濠) 등의 다양한 이름이 있다.

이 못은 상주 무지산(武智山) (권운의 시 - 일명 無智山은 경상도 속천지리지) 밑에 있으며 둑의 길이는 860 보이며 둘레는 16,647 척이라 (신증동국여지승람) 하였으니 1보를 0.5 m로 환산하면 430 m가 되고 1척을 포백척으로 계산하면 8.56 km가 되어 못 둘레가 22 리로 본 기록(동국문헌비고)과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의 존재만 알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못으로 남아있다.

못둑이라 할 수 있는 양정리 국도변 무녕기에서 화동 입구쪽까지는 430 m 쯤 되며 이 곳에 독을 쌓으면 사방이 산이어서 자연호수를 이루는데 이 못의 옛 나루터는 화동 입구에서 조금 서쪽 칠로가의 화동나루와 북쪽은 울곡1리 마을회관이 있는 법전나루 부곡1리 소란의 우복선생 신도비 밑 서쪽으로는 못가



1993년 개축된 공검지 전경

나루를 지나 부곡2리의 오리실과 도전을 지나 구마이까지 다 수원지거나 담수지였다. 공검지의 수심은 대체로 5~6 m 였으며 관개면적은 2672 정보였다. 고증이 나오고 있어 이 못의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1993년에는 상주군에서 3,938평으로 확장해 수심 3.4 m 의 연못이 조성되었다. 공검지는 예부터 서쪽 못가로 연꽃이 풍성하였는데 꽃이 만발할 때면 중국의 전당화와 방불하다 하여 시인 묵객의 감탄사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저 유명한 “공갈못노래”가 태어나 상주 함창 일대는 물론 낙동강 연안과 멀리 전라도 내륙지방까지 그 노래는 변형을 거듭하여 전파되기도 하였다.

채련요(採蓮謠 - 연밭 따는 노래)라 불리는 이 민요는 상주 함창 (현재는 상주군 공검면)의 공갈못을 배경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민요다. 이 노래는 이 조창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특성에 의해서 형성된 향토성과 토속성이 짙은 민요인데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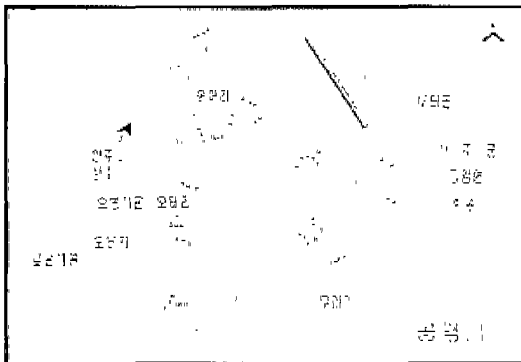
다운 가락으로 향민이 애창하여 오는 동안 갖가지 내용과 형식으로 발전되었다.

### 공검지 황룡에 관한 전설

상주에 사는 김이라는 사람이 경주를 갔다 오는 길에 아리따운 한 미녀를 만나 같이 동행하게 되었다. 김은 여자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고, 옷차림도 황홀하여 불길한 예감이 드는 동시에 공포까지 느끼었다. 대구 가까운 우명원(牛鳴院)에 도착하니 미녀는 갑자기 물을 이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물을 방안에 쏟아 버리고 황룡으로 변했다.

얼마뒤 다시 미녀가 되어 하는 말이 “나는 경주 용담에 사는 용녀인데 지금 공검지에 가면 그 못에 있는 암용과 싸움이 일어날 것이니, 당신은 나를 도와 주시오” 했다.” 김은 어쩔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도우면 되느냐” 고 물으니 용녀는 공검지에 모일 모시에 세 용이 서로 싸움을 할 것이라 했다.

세 용 가운데 청룡은 용룡(雄龍) 즉 나의 남편이요, 황용은 나요, 백용은 나의 출가를 방해하는 암룡이니 그 백룡을 죽여 달라고 청했다. 김은 죽여 줄 것을 약속하고, 그날 그 시간에 공검지로 나갔다. 과연 세 용이 엇치락 뒤치락 결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김은 급히 허리에 찼던 칼을 뽑아 백룡을 향해 찌는 것이 잘못되어 청룡의 허리를 자르게 되었다. 청룡은 피를 흘리며 못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황룡이 나타났다. 김을 향하여 당신은 어찌하여 백룡을 죽여 달라고 했는데 청룡인 나의 남편을 죽였느냐고 원망



했다.

그리고 노려보며 당신은 나의 남편을 죽였고, 나를 과부로 만들었으니 원수이긴 하지만 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 했다. 김은 그럼 집으로 가서 부모 형제와 처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오겠다고 공검지를 나셨다.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열이 오르고, 머리가 아파서 자리에 눕게 되었고, 이튿날엔 죽고 말았다.

김의 집사람들은 크게 놀라 무당을 데려다 알아 봤

더니 용신의 장난이라 했다. 못가에 제단을 쌓고 무당을 불러 기도를 하게 했다. 그때 못속에서 황룡이 나타나더니 나는 당신이 오기를 학수고대했는데 오늘에야 왔구려 하면서 황룡은 무엇인가 포옹하는 몸짓을 하며 못속으로 들어갔다.

김의 영혼을 안고 들어가 부부가 되어 잘 살고 있다고 한다. 🐉